

# 비구니 스님 '바람'에서 쏟아지는 희망과 그리움

## 동학사 승가대 '동학' 지 연재 '바람 속 이야기' 출간

스님들의 바람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형형색색의 패션 가방이 넘쳐나는 도심의 거리에 남산 만하게 배가 부른 바람을 등에 지고 가는 스님의 뒷모습. 스님 보다 먼저 바람이 보이고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비구니 스님이라면...

바람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속세를 떠나 절집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겪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그 뒷이야기들. 내면을 닦기 위한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번뇌를 떨치기 위해 각고정진 하는 숙연한 이야기. 뒤늦게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지만 이미 부모도 스승도 곁을 떠나버린 황량한 시간. 눈물로 털어 놓는 절절한 심경. 바람 속에는 가슴 적시는 이야기와 오열복통의 한담이 가득하다.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의 바람에서 풀어져 나오는 얘기라면 더 흥미롭고 애절하지 않을까? 그것도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강원이라는 뽀뽀한 대중생활 속에서의 공부 이야기, 인연이야기, 그리움의 마음들 그리고 좌충우돌 실수담까지라면 책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계룡산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일초)이 발행하는 <동학>지에 실린 학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바람 속 이야기>(문주

사 9000원)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백전만겁이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나에게 굳게 맺어 주시고선 당신이 가져야 할 곳으로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떠나가셨다"며 은사 스님을 그리는 지후 스님의 보은행 이야기. "행복! 내가 강원을 다니면서 더덕한 행복은 단지 그것! 경전보기를 즐기는 것입니다"라는 서형 스님의 학구파적 이야기. "그러나 정좌 출가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날 바로 통장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했던건 직장문제로 3년을 허비해야만 했다. 3년 동안 나는 스님 연습을 했던 것 같다"는 선재 스님의 출가 이야기.

고즈넉이 속내를 드러내며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숙연한 이야기도 정겹지만 스님들의 실수담은 배꼽이 아프도록 웃게 한다. 행자 시절 검은 짬밥을 하라는 원주 스님의 지시대로 검은쌀을 찾아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밥을 잘 했는데 공양을 마친 대중 스님들의 표정은 가지각색. 까닭을 알고 보니 검은쌀이라고 써서 넣은 것이 검은 깨여서 '검은깨밥'이 되었더라는 혜홍 스님. 대중과 함께 하는 아침 예불에서 창불(예불문 등을 선창하여 부르는 것) 소임을 맡아 엄청나게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선창을 했



는데 끝나고 보니 현황진언을 '울 바아라 도비아 미(홀이 맞는데...)'으로 하여 부전 스님에게 경책을 받고 '스타'가 되었다는 경원 스님. 걸레 빠는 소임을 할 때 뒷반 스님 방에 걸레를 배담하며 "스님 있습니까? 치문반 걸레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정우 스님. 그래도 속기의 어머니를 그리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는 눈물을 콧속 짙어 누르게 한다. 성기 스님의 사모곡을 들어보자.

"식발일을 하루 앞둔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산 속에서 세 시간이 넘도록 저는 당신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지난날의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고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남지 않았지만 오직 어머니 당신에게만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산은 온통 빨갭게 불타고 있었지요. 마치 당신을 버린 나의 가슴처럼.(중략)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 주시면 수제비가 먹고 싶습니다." 임연태 기자

## 행복의 문을 여는 '영혼의 지침서'



**바가바드 기타**  
책출리 지음 | 이지수 옮김  
채은 펴냄 | 8000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일상의 문제를 의뢰하는 나의 사전이 되었다.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영어사전을 펴보듯이 나에게 닦치는 모든 고민과 시련에 합당한 조치와 행동을 찾기 위해 이 사전을 펼쳐본다."

<바가바드 기타>는 700구절로 된 노래집으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거룩한 자의 노래'가 된다. 이 경전은 베다, 우파니샤드와 함께 힌두교의 3대 경전중 하나로 인도의 정신을 대변하는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주로 인간을 대변하는 아르주나 왕자의 질문에 신을 대표하는 크리슈나의 충고와 위안으로 이루어진 시가 주를 이룬다. 자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저야 하는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바닷가 근교 사찰 기행 에세이



**바닷가 절한 채 / 정성욱 글 / 은행나무 펴냄**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청량제가 될 아름다운 사찰기행 에세이. 불교에 심취해 국내 사찰이란 사찰을 샅샅이 훑고 다닌 중년의 시인과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사진작가가 의기투합해 바닷가에 인접한 기도 도량 14곳을 유람하고, 그 감상을 담았다. 동해 감추사를 비롯, 강화 정수사, 남해 보리암, 강릉 등명락가사, 여수 향일암, 강진 백련사 등의 방문기가 실렸다. (1만원)

##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는 여정



**아니온듯 다려가소서 / 안재인 글 / 호미 펴냄**

이 책은 저자가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 방편으로 2년에 걸쳐 수십차례 오대산 서대 염불암을 오르고, 그러던 끝에 그 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게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가는길에 만난 작은 생명들과 염불암의 풍경,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제 마음의 풍경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글과 흑백사진에 담았다. (1만원)

## 스님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詩語'



**백련암에 청개구리**  
정신 보덕 스님 지음  
고문당 펴냄 | 1만원

"악은 스스로 죄를 받고/선은 스스로 복을 받는다 선이나 악의 과보는/피할 수 없는 것/그 일만은 남이 대신 할 수 없느니라" -<인과응보 중에서>-

지리산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이 시집을 펴냈다. 제목은 '백련암에 청개구리'이다.

보덕 스님은 "제목에서 '백련'은 천정무구의 부처님을 뜻하며, '청개구리'는 귀한 법문을 경청 할 때는 부처의 마음이 됐다가 돌아서면 곧바로 중생이 되는 우리네 마음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복잡하고 딱한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상 상태를 배려하는 순수한 자기 내면의 본바탕을 잃지 말자는 바램으로 작은 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시집에는 '구도' '성불' '환희심' '풍경소리' 등 40여편의 시집이 담겨져 있다. 김주일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민희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권	붓다의 마음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도
8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9	행복한 공부	김정섭	김영사
10	오대산 노승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임대원 스님 법어집

# 철벽을 부수고 벽안 [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임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법범통지" 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임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임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깃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 02)2004-8219, Fax: 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